문화예술교육도 쇼핑하듯 즐긴다

‘문화예술교육 강사·프로그램 마켓’ 29~30일 광주 북구문화의 집서 자녀와 함께 체험 학습으로도 좋아

지난해 광주 북구문화의 집이 용주초등학교 6학년생들과 함께 진행한 ‘상상을 부르는 디자인’ 수업에서 한 학생이 학교생활을 디자인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 북구문화의 집 제공〉

‘이런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때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장터인 ‘광주문화예술교육 강사·프로그램 마켓’이 광주에서 처음 열린다. 29~30일(오전10시부터 오후 6시) 광주 북구문화의 집.

특히 이날 행사에서 소개되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장르 중심 예술교육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행사를 준비한 곳은 지난 2007년부터 문화관광부 선정,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 북구문화의 집이다. ‘아트에듀케이터와 그의 프로그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픈 마켓, 쇼케이스, 예술강사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예술가, 문화기획자, 교육자, 문화활동가 뿐 아니라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도 눈길을 끄는 행사다.

◇독특한 프로그램 눈길

이날 부스 형태로 운영되는 오픈 마켓에서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모두 20여개로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것들이 많다. 김광훈씨가 진행하는 ‘자전거포-자전거 수리공과 자전거 여행’은 자전거를 간단하게 수리하고 자전거의 원리를 배우며 자전거여행을 떠나는 자전거 답사 프로그램이다.

미술 관련 프로그램도 많다. ‘작업실로 떠나는 예술 여행’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탐방,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 디자이너 박현하씨는 생활소품속에 디자인 감각을 입혀보는 ‘디자인 생활백서’를 진행한다. 또 마음에 새길만한 구절을 서각으로 만들어보는 ‘서각으로 배우는 희망’(정진규), 시인 강회진씨가 운영하는 ‘걷는 시’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의 그윽한 향기에 빠져보는 ‘한잔의 여유로 만드는 커피’(김재원),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는 ‘언어문학교실’(지정남), 음악과 함께 한자를 배우는 ‘건반 치는 훈장 선생님’(민관기), ‘어린이 기자 수업’(조선) 등도 만날 수 있다.

쇼케이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시범 수업으로 크로스 오버 앙상블이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를 선보이고, 디자이너 박현하씨는 ‘수묵을 이용한 티셔츠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 또 인디밴드 음악교실, 서각체험, 건반 치는훈장 선생님도 직접 시연한다.

◇문화예술 강사 인적네트워크 확보

이번 마켓의 목적 중 하나는 예술가, 문화기획자, 교육자,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이들의 연결고리를 튼실히 하는 것이다. 단체 중심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프로그램 기획자와 예술강사 등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전면에 배치, 이들의 참여도도 높였다.

아쉽게도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폐지된다. 북구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된 기존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9일 열리는 ‘광주지역 넷 충전소 예술강사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전고필 광주 북구 문화의 집 대표는 “센터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기존의 성과물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이번 마켓을 기획하게 됐다”며 “북구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문의 062-268-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성서 뮤지컬 ‘홍길동’ 제작발표회

슈퍼 주니어 예성 등 배우·제작자·지역주민 등 300여명 참여

26일 오후 장성군청에서 열린 뮤지컬 ‘홍길동’ 제작발표회에서 이 청 장성군수(가운데)와 주연배우인 예성(왼쪽), 성민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적 홍길동을 재조명하는 뮤지컬 ‘홍길동’ 제작발표회가 26일 오후 장성군청에서 열렸다.

서울에 이어 열린 이날 제작 발표회에는 이청 장성군수를 비롯해, ‘홍길동’ 주연 배우인 그룹 슈퍼 주니어의 예성과 성민 등 배우와 제작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메이킹 필름과 홍보 영상 등이 상영됐으며 홍길동 역을 맡은 주연배우들이 뮤지컬 삽입곡 ‘어머니’를 열창했다.

뮤지컬 ‘홍길동’은 장성 출신 홍길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장성군이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공동 제작한 민·관 합작 뮤지컬로 장성군은 총 제작비 25억원 가운데 제작비 15억원을 투자했다.

이 청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의적의 상징인 홍길동을 재조명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최초로 만든 뮤지컬 홍길동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인터파크 등을 통해 예매를 시작한 ‘홍길동’은 오픈 첫날 3천여장이 팔려나가는 등 티켓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홍길동’은 오는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두달간 뮤지컬 전용관인 서울 올림픽 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꾼’ 이화경씨 광주 독자와의 만남

30일 오후 2~5시 충장로 엔제리너스 낭독·대화·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

최근 장편역사소설 ‘꾼-이야기 하나로 세상을 희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낸 이화경(46)씨가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엔제리너스 광주 금남점에서 독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웅진문학에디션 뿔이 주최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 씨는 자신이 직접 전기수(시장 등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소설을 읽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직업적인 낭독가)가 되어 소설의 정수리 부분인 ‘마님, ‘짬보’를 준비하세요!’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 씨는 이번 독자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팔도의 백성들이 남 몰래 소설을 탐독하고 아녀자들까지 언문소설에 취해 있을 때 임금은 왜 소설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탄압하려 했는지, 그 와중에도 신분과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제 것으로 취해 보려 했던 한 이야기꾼의 본질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는 독자와의 대화, 질의 응답, 저자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1997년 ‘세계의 문학’에 ‘둥근잎나팔꽃’을 발표하며 작가의 길로 들어선 이 씨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십 년 넘게 일부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인도로 건너가 캘커타 대학 언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펴낸 책으로는 ‘수화’, ‘나비를 태우는 강’, ‘그림자 개’, ‘조지아오키프 그리고 스티글리츠’, ‘울지 마라, 눈물이 네 몸을 녹일 것이니’ 등이 있다.

차는 무료로 제공하며 현장에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다. 문의 062-226-601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양화가 심계효씨 꽃 그림 展

2월2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이트

서양화가 심계효씨가 27~2월2일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 라이트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심씨는 여성의 손길과 어머니의 마음이 묻어 있는 꽃 그림을 선보인다. 해맑게 봉우리를 터뜨린 꽃은 따사로운 봄기운을 전달해 준다.

또 부드러운 형태와 단아한 색으로 갈무리된 꽃들은 미학적 가치를 더해준다.

심씨는 경인미술관. 현대백화점, 롯데월드화랑, 마닐라 국립현대미술관 등지에서 8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협회원, 조미회, 무진회, 한중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10-01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제’